

하늘사랑

2019. August 8

www.kma.go.kr Vol. 458

포커스 뉴스
대구지방기상청이 되기까지
112년의 발자취

열린마당
우리 모두 화가가 되는 순간

날씨 + 동화
여름, 아름, 얼음!

기상청

오늘,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머그컵

밖에서는
텀블러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하늘사랑

2019 August Vol. 458 2019년 8월호(통권 458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9년 8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임덕빈 **편집기획** 오철규 김혜정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포커스 뉴스
대구지방기상청이 되기까지
112년(1907~2019)의 발자취 · 02

KMA About

열린마당
우리 모두 화가가 되는 순간 · 04
나의 소확행, 홈베이킹 · 06
6현의 하모니, 클래식기타 · 08
신선예보관이 된 영등할망! · 10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동시집
「무지개가 뀐 방이봉방방」 · 12
Connecting the Dots · 14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다! · 16

KMA 날씨 +

날씨 + Story 〈거리의 만찬〉 속 기상청 사람들 · 18
날씨 + 현장 드론, 기상레이더를 만나다 · 20
날씨 + 체험 딸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하늘사랑 사생대회' · 22
날씨 + Book 100세 정신과 의사 할머니의 마음 처방전
『백 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 · 24
날씨 + 동화 여름, 아름, 얼음!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오늘 당신의 날씨 · 30
포토 에세이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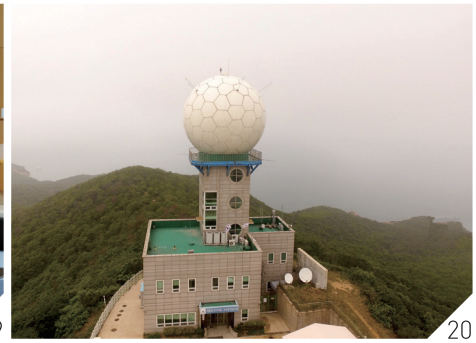


August



03


09


2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대구지방기상청이 되기까지 112년(1907~2019)의 발자취


대구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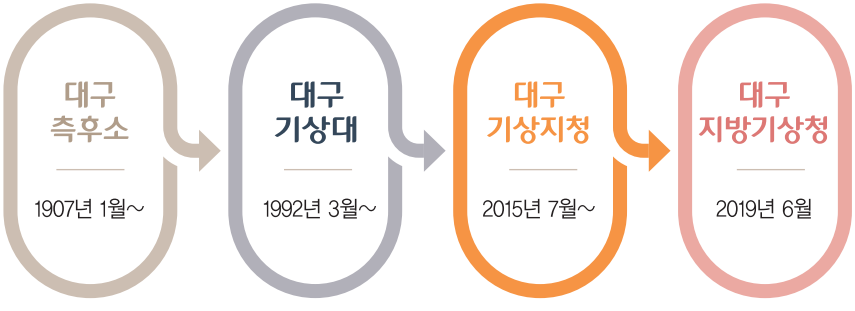
2019년 6월 18일은 대구기상지청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된 역사적인 날이다. 1907년 1월 대구측후소로 창설되어 1992년 대구기상대, 2015년 대구기상지청을 거쳐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되었다. 측후소 시절의 과거부터 대구지방기상청이 된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자.



대구지방기상청이 되기까지 112년

1907년 1월, 대한제국 대구측후소(현재 대구시 중구 포정동)가 완공되어 첫 기상관측 업무를 시작했다. 1937년 동구 신암동으로 이전한 후 1992년 3월 조직 개편으로 대구측후소는 대구기상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대구를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주자 기상대 규모로는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 처음으로 지방기상청으로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구지방기상청으로의 승격을 위해 기상청과 대구시는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 2015년 7월 지방조직 광역화에 따라 대구기상대가 대구기상지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대구·경북 24개 시·군'의 기상·기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연달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2018년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내 지방기상청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마침내 2019년 6월, 측후소 창설 이래 112년 만에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대구지방기상청은 110여 년 동안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상관서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상·기후서비스 발전의 중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되고 달라지는 점

대구기상지청은 2개 과(관측예보과, 기후서비스과)로 운영되었으나, 승격 이후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 총 4개 과로 분리 개편되면서 각 분야별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방재기상 대응과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경북북부 지역에 위치한 안동기상대는 부산지방기상청 소속으로 운영되다가, 대구지방기상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경북북부 지역 유관기관과의 방재기상 협력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기념식

지난 7월 18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대구지방기상청 야외마당에서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기념식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종섭 국회의원, 강효상 국회의원, 김규환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석 기상청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대구지방기상청 승격을 축하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구지방기상청이 되길 기원하는 등 많은 귀빈객과의 축하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기상청의 앞으로 각오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된 것은 보다 개선된 기상·기후서비스 및 신속한 방재기상 대응을 바라는 대구·경북 지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다. 이에,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경북의 기상업무 기반 환경을 개선하여 기상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편익 향상시키기 위해 최상의 기상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 화가가 되는 순간

어느 날 점심시간, 우리 과 직원이 커다란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붓을 꺼내왔다. 일명 'DIY 명화 그리기' 세트. 이후 관심 있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 사무실 중앙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에 색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무실 중앙테이블은 점심시간 동안 우리의 미술 작업장이 되었다.


사무실 게시판에 전시된 첫 작품

색다른 취미생활의 시작

취미 생활로의 미술은 번거로운 면이 있다. 수많은 미술용품과 그 비용 및 회화, 조각, 판화, 디자인 등 방대한 분야와 '예술'이라는 추상적인 면이 미술을 '취미'와는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다. 그러나 '힐링'측면으로 접근하여 몇 해 전, '컬러링 북'이 인기를 끌면서 취미로의 미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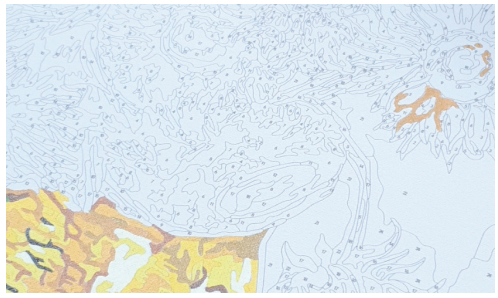
나 또한, 커다란 캔버스를 보았을 땐, 그림도 큼직큼직하니 다 만들고 나면 멋진 작품 하나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실 처음에 캔버스를 가지고 온 직원은 혼자 다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져온 것이었지만, 덕분에 점심시간이 무료했던 몇몇 직원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상진
국가기상위성센터 차세대위성개발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어떻게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흰 캔버스 위에 이미 그림을 분석해놓은 듯이 색깔에 맞춰 번호들이 일정한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냥 한 명씩 붓을 들고 해당되는 번호에 맞는 물감들을 캔버스에 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붓 그리고 물감, 이 모든 것들이 명화 그리기 세트에 들어있어 따로 준비물을 챙길 필요도 없었다.



색깔별로 번호가 적혀있는 캔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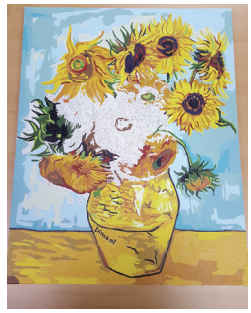


정해진 색을 채우는 모습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해바라기들









첫 시작은 고흐의 '해바라기'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작품은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이었다. 미술을 잘 모르는 나도 눈에 익은 작품이었는데, 하지만 정작 눈에만 익었지, 손은 익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번호에 맞는 물감을 해당 영역에 색칠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붓질도 어색할뿐더러 색을 칠해야 할 영역이 섬세하게 나눠진 부분도 많아서 얇은 붓, 두꺼운 붓을 바꿔가며, 색칠해가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채워간 결과, 고흐가 그려냈던 따뜻한 느낌의 '해바라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취미의 공유, 마음의 여유 그리고 뿌듯함

고흐의 '해바라기'를 완성하기까지 약 두 달이 걸렸다. 물론 온종일 며칠을 그려나갔다면 금방 끝낼 수도 있었을 양이었지만, 우리는 점심시간 30여 분 동안만 작업했기 때문에 완성을 빨리 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매일 주어진 시간 동안만 여유롭게 색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매일 '그림 그리기'라는 취미생활을 부서원들과 공유하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차분한 활동 덕분에 한껏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오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달여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다 같이 무언가 모를 뿌듯함까지 느끼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박수는 덤이었다.

혹여나 누군가 이 취미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꼭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그리기는 힘들었던 사람이나, 점심시간과 같이 특정 시간대가 여유롭다면 DIY 명화 그리기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도 사무실 점심시간에는 4명의 화가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또 다른 작품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

나의 소확행, 홈베이킹



갓 구운 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빵집을 지날 때면 어느새 우리 입가엔 미소가 지어진다. 지치고 힘들 때 달콤한 빵 한 조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 받는 느낌이 든다. 취미로 빵을 만들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조가연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언제 가장 행복하니?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긴 휴직 기간을 보냈다. 휴직 기간 동안 엄마와 아내로 살면서 점점 낮아져 가는 자존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나는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 내가 잘 할 수 있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기상청에 막 입사했을 당시, 자기소개를 할 때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나 자신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다. 지방에서 근무할 때도 음식을 만들어 직장 동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즐겼었고,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때 큰 행복감을 느꼈다.

홈베이킹 책 한 권을 사다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큰마음을 먹고 홈베이킹 관련 책 한 권을 샀다. 책에는 제과제빵의 기본과 유튜브 동영상 강의와 연계하여 초보자가 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책 한 권과 유튜브 강의는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이자 선생님이었다.

매일 밤, 빵 만들기에 미치다

처음에 쉬운 쿠키와 파운드케이크부터 시작하여 식빵, 모닝빵, 시나몬롤, 타르트, 케이크 등 매일 다른 빵을 구워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책에 쓰인 재료대로 준비해서 내용물을 섞고 일정





처음 만든 우유식빵



팥소까지 직접~단팥빵

시간 기다려 발효를 시키고,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매일 새로운 빵들이 탄생하는 것이 설레고 기뻤다. 아이들을 다 재운 밤 11시에도 빵 반죽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아, 정말 내가 빵에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꼈다.

독학으로 빵 만들기를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재료의 계량이 잘 못 되어 빵이 아니라 떡이 되는 날도 많았고 오븐에서 나왔을 때 딱딱한 벽돌과도 같은 빵이 나오는가 하면, 온도를 간과하여 발효가 아예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정해진 공정대로 하지 않고 꾀를 부리거나 요행을 바라는 날은 결과물이 엉망이었으니,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었다. 빵 만들기는 나에게 있어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임이 틀림없었다.

나누는 즐거움, 행복감 UP

거의 매일 빵을 굽다 보니, 식구들이 다 소비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 남았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친척에게 예쁘게 포장하여 선물로 드렸다. 직접 만든 빵이라 그런지 받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맛있다는 칭찬이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기쁘고 행복했다. 그리고 이 작은 빵 한 조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음식이라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에 확신이 들었다.

혼자 스스로 하는 공부는 즐거워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찾아 공부해보고 도전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혼자 빵 만들기를 하면서 독학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겼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다. 인간관계,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에 애정을 갖고 좋아하는 연습부터 해본다면 같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부터 다음에는 어떤 빵을 만들까 달콤한 고민으로 행복해지는 나를 만난다. 작은 취미로 시작한 홈베이킹이지만, 이 취미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후에 전문적인 수업도 들어보고 자격증도 따는 등 내 취미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

6현의 하모니, 클래식기타



나에게 클래식기타는 각별하다. 스무 살부터 10년 동안 취미로 해왔던 클래식기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추억을 만들었다. 클래식기타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이 통기타는 알고 있지만 클래식기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클래식기타 합주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클래식기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통기타와 클래식기타

'클래식기타'는 연주용으로 만들어진 기타다. 그래서 반주용으로 만들어진 통기타에 비해 한 음 한 음 짚기 쉽도록 비교적 넥이 넓게 만들어졌으며, 줄도 나일론 줄이라 소리도 부드럽다. 통기타는 반주용으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요즘은 '핑거스타일'도 많이 치기 때문에 연주곡을 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클래식기타를 먼저 배우면 다른 기타를 치기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를 처음 배운다면 클래식기타를 추천하고 싶다.

경북대학교 클래식기타 합주단

스무 살 무렵,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대학동기의 추천으로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클래식기타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10년 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혼자 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화음을 만들고 합을 맞추는 일이 정말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면서 대학생 때만큼 열정적이지는 못해도 매달 모여서 연습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연주회를 하면서 꾸준히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클래식기타 합주대회

올해 6월, 우리 팀은 대구에서 열린 '2019 대구 국제 기타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갑자기 참가하게 되어 3개월 밖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평소보다 더 자주 모여 연습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 곡은 윤용하의 '보리밭'과 로시니(Rossini)의 '윌리엄 텔 서곡(William Tell Overture)' 이었다. 윌리엄 텔 서곡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좋은 곡이라 재미있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기가 버겁기도 했다.



온누리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제 2회 국제 기타 페스티벌 중 합주대회 참가

그렇게 대회 날이 다가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타를 들고 대회장에 들어갔다. 어려보이는 학생들부터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회 준비하는 걸 보면서 '나도 평생 기타를 놓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팀들의 합주를 들으면서, 경쟁자라는 느낌 보다는 연주회에 온 듯 넋 놓고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 대학생 클래식 기타 합주대회에서 수상했던 적이 있어서 내심 기대는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 아쉬웠다.

이번 '대구 국제 기타 페스티벌'은 합주대회뿐만 아니라 프로 기타리스트들의 공연, 기타 판매 및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앞으로 매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참가해보면 좋을 것 같다.

String Breeze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 기상청 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기상청 클래식기타 동아리 이름은 산들바람 같은 기타연주를 하자는 의미로 'String Breeze'라고 지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과 올해 2번, 레인보우 합창단 공연 때 기타 4중주도 선보였다. 함께 꾸준히 천천히 배워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는 'String Breeze!'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클래식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신선예보관이 된 영등할망!

만들다보니 만든 사람도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 기후정보 웹툰 '클립툰!' 그 속에서 만나는 신선예보관 영등할망과 브롬, 송키의 재미있는 제주 기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후정보제공 '웹툰'

변화무쌍한 제주도의 날씨! 같은 날, 같은 시간에도 동서남북 전혀 다른 날씨를 보여주는 건 섬과 한라산의 조합이라는 독특한 지형적인 요인이 크다. 이러한 제주의 기후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의 기온과 강수량, 특이기상 등을 담아 맞춤형 상세기후정보인 '손에 잡히는 제주기후'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했다. 딱딱한 기후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었으나,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하다 보니 결과물의 수준과 수요자 정보 전달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기후특성이나 이슈를 좀 더 쉽고 재밌게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문득 '웹툰'이 떠올랐다.

'영등할망'의 탄생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있을까, 너무 막연한 시도는 아닐까, 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제주도에도 전문 작가가 많았고, 웹툰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줄 업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캐릭터 선정. 제주 기후와 관련이 있으면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잘 전달해줄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다. 가족 구성원, 동물 캐릭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영등할망'이 탄생하였다. '영등할망'은 제주도의 날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神)으로 제주에서는 마을마다 농업과 어업의 풍년을 기원하며, '영등굿'을 행한다. 그만큼 제주도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신으로 제주도민에게 익숙한 '영등할망'을 웹툰 주인공으로 결정했다.



양세중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웹툰 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영등할망 외에도 호기심 많고 엉뚱한 손자 '뷰롬(바람의 제주방언)'과 귀엽고 야무진 손녀 '송키(야채의 제주방언)'를 등장 시켜 웹툰의 캐릭터를 완성시켰다. 웹툰의 캐릭터를 결정한 후 스토리를 구성해야 했다. 우선, 제주도의 기후를 이해하기 쉽도록 '영등할망'에게 '신선예보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했다. 신선예보관은 신선들에게 일기예보를 전달하고, 뷰롬이와 송키에게 기상기후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 주는 역할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기후정보에 이야기를 입히는 과정이다.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면 이야기가 재미없고, 이야기에 치중하다 보면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이 두 가지 부채를 양손에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줄타기를 잘하는 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의 날씨가 평범해서 기후이슈가 없다면 새로운 주제로 접근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재미와 웃음을 줘야하기에 지금까지 발간한 5화 모두 생각보다 제작시간이 오래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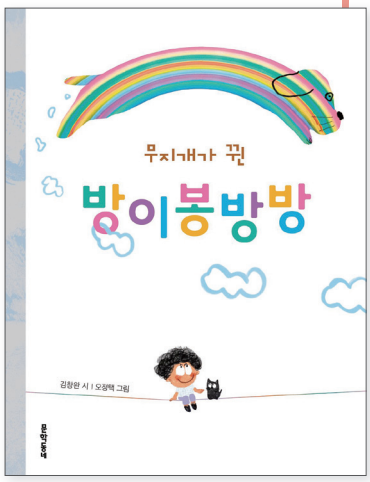
만든 사람도 재밌는, 클립툰



확실히, 재밌고 접근성이 쉬우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략을 수정한 결과, 성공이었다. 페이스북에 게재 할 때마다 '좋아요'가 많아졌고 개인적으로 공유해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가끔 다음 화를 기다리는 문의도 들어온다. 게다가 꽤나 괜찮은 제목까지! 기후정보 웹툰의 이름은 클립툰(CLImate rePort TOON)이다. 제목처럼 기후이슈를 국민에게 전달해서 기억 속에 쏙쏙 잘 '클립'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신선예보관 '영등할망'과 '뷰롬' '송키'에게 앞으로도 기후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클립툰은 매월 1회, 총 12화를 발간할 예정이며,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5화가 연재되고 있다. 클립툰을 통해 매달 제주 지역 기후에 대해 즐겁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동시집 「무지개가 뀐 방이봉방방」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DJ이자, 산울림의 멤버, 연기까지 모든 장르를 소화해내는 김창완의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가 방송된다. 어느 날, 김창완 씨가 동시집 「무지개가 뀐 방이봉방방」을 출간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 이 책을 구입했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진행이면 진행, 거기다 동시집까지 출간한 작가라니! '그는 정말 이 시대의 천재인가보다'하는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 다섯 살 아들과 동시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양장본의 표지를 들추자마자 김창완다운 사인이 날 미소 짓게 했고 곧 그의 매력에, 그의 동시에, 그의 순수함에 빠져들었다.

여기 나오는 시 몇 편을 소개해본다. 아마, 김창완의 매력에 푹 빠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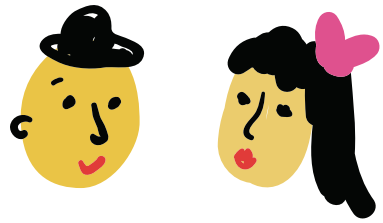
엄마가 나를 안고 자장가를 부른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아장 자아장
내 눈은 더 말똥말똥해지는데
엄마 목소리는 점점 졸려진다
자아장 자아……
엄마는 잠이 들었다
기어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꼭 안고 있다
나도 잠이 들었다 할 수 없이



오병찬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이 시는 육아에, 집안일에 피곤해서 아이를 재우려다가 먼저 잠이든 엄마, 아빠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만한 경험이라서 격하게 동감한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 지금도 야근하고 집에 조용히 들어가 보면 한 팔에는 아들을, 또 다른 한 팔에는 딸을 팔베개해주고 예수님처럼 잠이 들어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참 미안하고 고마움을 느낀다.

혼내기



나는 어른들이 언제 혼내는지 딱 알지
오줌 싸고 다른 이불로 덮어 놨을 때?
그런 때는 혼내기는커녕
뒤돌아서서 웃음 참느라고 볼이 씰룩거리지
거짓말했을 때?
그때도 그렇게 심하게 혼내지는 않지
오히려 거짓말한 걸 자백하라고 슬슬 구슬리지
하지만 그럴 때 속으면 바보지
한번 한 거짓말은 들통 날 때까지 거짓말로 남겨 둘 것
어른들이 혼낼 때는 바로 자기들이 거짓말할 때지
그때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우리는 보통 왜 혼나는지도 모르지



위 동시는 요즘 들어 자주 느끼고 동감하는 시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점차 논리성을 잡아가게 되자, 가끔 거짓말을 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아이들도 부모들이 거짓말을 할 때 다 느끼나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아니! 아이들 앞에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한 번 더 명심하고 명심한다.

이 책은 아이가 있는 집, 특히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꼭 추천을 한다. 같이 읽으면서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고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시들이 많다. 게다가 양도 많지 않고 재미있는 삽화도 같이 있어서 마치 만화책을 보는 듯 금방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이와 외모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처럼 푸근하고 해맑은 김창완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 특히, 시집에 실려 있는 삽화도 그림책마냥 아기자기해서 아이들이 보기 좋아할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모든 걱정과 업무를 잠시 미루고 동심의 세계로 한 번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Connecting the Dots

"Connecting the Dots,"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과거의 경험들이 점처럼 모이면 하나의 선이 되어 내 인생이 된다는 뜻처럼,'과거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현재의 나'를 거쳐 어느 정점에 이르러 '미래의 나'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연속된 시간의 굴레 속에서 나 자신에게 놓인 여러 사건이 필연적으로 미래에 다다르진 못했다. 과거의 나에게 놓여 진 여러 사건과 기회들을 이어나가 결국 미래로 내딛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이 글을 통해 적어보고자 한다.





이혜원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인가?'

2014년 어느 겨울날, 나는 취준생으로 최종 면접 준비에 열을 올렸다. 지진학 석사를 졸업하고 호기롭게 지진 유사 분야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몇 차례 최종 면접에서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석사 시절부터 '기상청'은 늘 친숙했다. 기상청의 R&D 과제 참여와 '지진·지진해일·화산 대국민 교육 강사'로 몇 차례 강의 기회가 있었다. 또한, 관련 교구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하여 운 좋게 상도 받았으며, 그 기회로 기상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졸업 후, 이런 인연으로 '국제기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UN 인턴쉽 지원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지원해보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다. 교육 후 소수만이 얻게 될 UN 인턴쉽 기회에 도전하기에는 '취업과 새로운 도전', 그 사이에서 나의 1년 이상을 기꺼이 할애하기란 선뜻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지나온 나의 과거 dots,

2014년 12월 한밤중, 얼마나 있을지 모를 낯선 거리에서 묵직한 캐리어를 끌며 초조하게 나의 집이 될 파리 7구의 4층 방문을 두드렸다. 첫 출근 날, 떨리는 인터뷰를 뒤로한 채, 다소 깍쟁이인 듯한 스페인 출신의 Bernardo 상사가 업무지침을 읊었다. 첫날 오전은 어떻게 흘러간 지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사무실 문 앞 나의 이름이 걸린 명패와 점심 카페테리아에서 통유리 창에 정면으로 비친 에펠탑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찔한 두근거림이었다. 6개월 동안 지진해일이라는 또 다른 분야와 가까이 하며 여러 도전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 중에 지금의 배우자도 마주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정규직 기회는 드물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의 일은 공백 없이 전 단계의 일이 그 뒤의 일로 이어 나갔다. 그리고 작년 12월, 기상청에서 기상연구사로서 지나온 나의 과거 dots과 지금의 dot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나는, '미래 어느 순간의 나'이다.

지난 4월, '제28차 태평양 지진해일 경보 · 경감시스템을 위한 정부 간 조정그룹 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 무려 30시간이 넘게 3번의 비행 끝에 중남미에 위치한 '니카라과'에 도착했다. 일주일간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지진해일 경감을 위한 최신 과학기술 교류와 협의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나의 첫 UNESCO IOC 보스였던 Bernardo가 있었다. 4년 만에 조우한 그는 여전히 칼 같은 일의 마무리와 좌중의 흐름을 잡고, 결국 결론을 끌어냈다.

장시간 회의에 피곤도 했지만, 매일 밤 니카라과에서 바라본 하늘의 별들은 마치 과거의 무수한 나의 Dot처럼 내게 영감을 주는 듯했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언젠가 미래의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기회와 도전, 하나의 방향성

돌이켜 보면, 긴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은 그때뿐이었다. 두려움으로 져버리기엔 그 기회는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의 점처럼 분포해 있으며, 다음 미래 어떤 부분에서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져 결국 완전한 선으로 존재한다. 다만 각각의 점들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도전해 나가야 비로소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 나 자신이 되리라 본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현재 사건이 결국 내게 필연적이었음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다.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먼 미래에, 지금 나의 점들은 어떤 선을 향해 맞춰 나아가고 있을지 기대된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결국 미래가 될 나 자신에게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다



"공직자로서 후반전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늘 그러하듯 작심삼일을 밥 먹듯 하지만, 이제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다. 2019년 새해부터 직장 동료들과 나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헤매어 왔다.

시작은 걷기부터 라이딩까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 무엇이 손에 쥐어져 있고, 그 성취감에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삶의 질과 업무 능률 향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트레킹, 산악자전거(MTB), 탁구, 축구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강릉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한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센터는 내 손목에 활동량계를 채우고, 블루투스로 매일 활동량을 체크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6km. 이보다 먼 거리를 돌아 하루 15km 이상을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아침 7시, 경포호수를 옆에 두고 오죽헌(보물 165호)을 지날 때면 신사임당과 율곡선생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다. 동해의 일출을 등 뒤에 두고 산길을 가로질러 걷다가 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원과 합류하여 구수한 역사 이야기에 취하다 보면 어느덧 사무실에 도착하게 된다. 퇴근 때는 경포해변의 울창한 소나무와 벚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을 지나 대관령 너머 석양을 바라보면 어느새 가쁜 숨을 쉬게 된다.

거침없는 하이킥

석 달 전부터는 산악자전거를 시작했다. 매주 월, 수, 금요일은 트레킹, 화, 목요일에는 산악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맑은 공기를 가르며 해변과 논, 밭 그리고 산길을 넘나들며 하루 50km 이상을 거뜬히 소화한다. 그동안 걷기 130만 보(약 1,000km), 산악자전거 약 1,100km, 몸무게 81kg → 74kg, 이것이 현재 나의 성적표다.



박창수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







운동이 주는 변화된 삶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걷기와 산악자전거 라이딩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실 공직생활의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나약해져 있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느끼는 무릎 관절염, 불면증, 소화불량, 피로감 등 온갖 크고 작은 병과 스트레스를 갖고 생활하게 된다. 운동의 절실함을 알면서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하루의 시작은 치열한 정신력의 싸움이었으나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의 자세로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운동으로 고질적인 무릎 관절염과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

도전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내가 근무하는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 직원들은 배움의 열기가 대단하다.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저마다 취미와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악자전거로 역사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역사 이야기를 공유한다. 또한 색소폰, 클라리넷 등 악기다루기와 서양화, 연필화 등 그림그리기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어쩜 내가 시작한 도전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바이러스로 전달된 건 아닐까?



미래의 모습 그려보기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과 도전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배고프다."라고 했던 '거스 히딩크'의 말처럼 지금도 나는 배가 고프다. 도전을 멈출 수가 없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 보며,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거리의 만찬> 속 기상청 사람들

야근할 때였습니다. 야근자의 자리 근처엔 텔레비전 5대 정도가 늘 켜져 있습니다. 놓친 뉴스는 없는지, 돌발 상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규 뉴스가 다 끝난 시간, 한숨 돌리려는데 제 눈길을 끄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KBS 〈거리의 만찬〉이었습니다.





강은지
동아일보 기자

기상청 사람들 <거리의 만찬> 주인공이 되다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왜 틀려요?" "일본 예보가 더 잘 맞는다면서요?" 출연한 연예인들이 질문합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알고 싶은 대목이긴 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기상청 체육대회날 비가 온다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어넘겼지만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했거든요. 이때부턴 소리도 좀 키워서 집중해 봤던 것 같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고요? 솔직히 방송을 볼 때는 '아, 그렇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슈퍼컴퓨터도 당연히 틀릴 수 있지, 지금은 우리 예보가 더 정확하지.' '지난 5월 간담회 때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해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세밀한 예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빗나감, 그 혹독한 대가

오히려 방송을 보고 난 직후엔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예보 업무와 별개로 선입견과 맞닥뜨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태풍이 예보와 달리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아 많은 항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보면서요. 기상청의 전체 예보는 정확한 편이지만, 사람들에겐 그 한 번의 '빗나감'이 크게 느껴지면서 기상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진 것이겠죠.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이미지가 굳어지고요.



그날의 방송은 딱 저 정도의 생각만 제게 남기고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그 뒤에도 장마 전선이 북상할 때, 수도권이 더울 때 수시로 기상청 대변인실에 연락해 궁금한 걸 여쭙고 기사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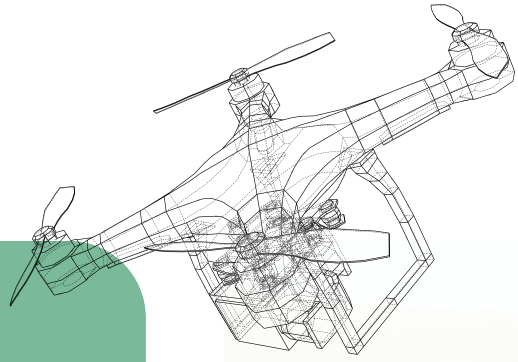
다시 방송 내용을 떠올린 건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으로 바빠졌을 때였습니다. 기상청에선 1시간 간격으로 '다나스' 관련 방재 속보를 발표하고, 아침 일찍부터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왔습니다.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기상청을 오래 출입한 기자들에겐 익숙한 일일 겁니다. 또 당연한 일이겠죠. 태풍, 장마, 지진, 폭설…기상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대로 전달하는 게 기상청의 소명이니까요.

불안하지 않은 예보

그러나 방송을 본 후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갔고, 누군가는 또 집에서 싸준 삶은 계란으로 간단히 요기를 했겠지요. 역시나, 대변인실도 주말 내내 근무하는 모양입니다.

또 회사에서 "다나스 예상 경로가 일본 기상청 예상과 다른데 왜 그런거야?"라고 물어봤을 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보가 허술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아서 일겁니다.

태풍과 장마와 폭염으로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보가 달라지면 항의가 쏟아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날의 방송을 본 누군가는 기상청을 믿고 여러분의 수고를 떠올릴 겁니다. 저처럼요. 그러니 조금 더 기운 내서 이번 여름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씨 예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론, 기상레이더를 만나다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존 단일편파기상레이더에서는 불가능했던 눈·비·우박 등 수상체 분류가 가능한 '이중편파기상레이더'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백령도, 용인을 시작으로 2019년 강릉을 마지막으로 전국 11개소의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중편파기상레이더 운영 현황을 반영한 새로운 관측망도를 '드론'을 활용하여 만드는 중이다.



오성산기상레이더





한예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시작은 성산기상레이더에서

처음 촬영하는 곳은 제주도에 있는 성산기상레이더다. 제주도로 출발 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드론 작동 실력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제주도에 도착했다. 게다가 '바람'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1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 드론을 높이 올리지 못했다. 드론 초보자인 나는 용기 내지 못하고 성산기상레이더 촬영을 포기한 채, 돌아가기로 했다. 쓰디쓴 첫 도전이었다.

마음만은 드론 촬영 전문가! 오성산기상레이더

오성산기상레이더에 도착한 당일, 주변에 생긴 짙은 안개로 드론을 날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어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안개는 걷혀 드론을 띄우기로 했다. 기상레이더 특성상 주변에 레이더보다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이 없다 보니 드론을 작동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 여러 가지 각도로 촬영을 하며 기상레이더를 촬영해 보았다. 먹구름이 낀 회색빛 하늘은 아쉬웠지만 드론을 날리고 촬영하는 건 정말 짜릿했다.



드론으로 찍은 광덕산 레이더돔



준비부터 끝까지 어려운 백령도기상레이더

백령도는 섬 전체가 군사 지역으로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신청하며, 백령도기상레이더 드론 촬영을 준비해 갔다. 촬영 당일, 맑았던 전날 날씨는 사라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흐린 날씨를 걱정하며 오후에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뜨는 것을 기대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안개는 더욱 심해졌고 하늘 위로 올린 드론은 안개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어렵게 드론 비행 및 촬영을 허가받고 들어온 백령도였지만 생각지 못한 짙은 안개로 백령도기상레이더 촬영은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성공적인 기상레이더 드론 촬영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준비한 기상레이더 드론 촬영은, 아직까지 만족한 결과가 없다. 날씨가 흐려 영상이 어둡게 나오거나 기상악화로 드론 촬영을 못 했던 날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이제 남은 관악산, 구덕산, 고산, 면봉산, 강릉 레이더는 꼭 좋은 날씨에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별 탈 없이 기상레이더를 촬영하고 싶다.

전국의 기상레이더 영상 및 사진을 모아서 새로운 이중편파기상레이더 관측망도 자료를 완성한다면, 1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업무가 보람찬 일이 될 것 같다.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자료들을 만들어 만족스러운 '이중편파기상레이더 관측망도'가 완성되길 기원해 본다.

딸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하늘사랑 사생대회'

초등학교 6학년인 딸 민주는 어릴 적부터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이것저것 그리며 혼자서도 잘 놀더니, 그림에 소질이 있는지 심심찮게 상을 받아오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종 사생대회에 꾸준히 참가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안동기상대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했다.





대상 **강민주** | 맑은 날 별자리 구경

별처럼 빛나는 그림

처음엔 비, 구름, 무지개에서 고민하였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재라 생각하여, 차별화된 소재 선정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어느 날, 별자리 관련 책을 읽던 민주는 맑은 날 밤하늘의 별을 보는 장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막상 민주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검은 배경에 달, 별자리, 은은한 구름을 표현한 것이 무언가 허전했다. 별자리를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그림에 큐빅을 붙이는 방법을 생각했고 비로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상대로부터 대상 통보와 함께 시상식 참석 초청을 받았다. 수상 소식을 민주에게 알려주니 무척 행복해했다. 딸의 대상 수상 소식에 딸보다 더 기뻐하며, 큰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그렇게 운명의 시상식 날이 밝으며, 난생처음 기상대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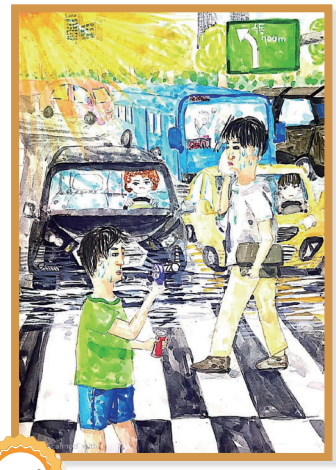
김수정
〈제7회 하늘사랑 사생대회〉 대상 강민주 학생 어머니



금상 유치부 | **박도율** | 번개와 비



금상 고학년부 | **김지훈** | 더운 여름 길위의 아지랭이



금상 저학년부 | **권주성** | 무더운 여름에는 물뿌리기가 최고죠



생애 첫 기상대 방문

설레는 마음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안동기상대에 도착했다. 안동기상대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상당히 분주한 느낌을 받았다. 따뜻한 인상의 안동기상대장님께서는 축하 인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시상식을 통해 상장과 부상을 받고, 역대 사생대회 입상작을 감상했다. 안동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깃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저마다 다양한 시선으로 날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아이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우리 딸이 매우 대견했다.

날씨에 대해 배우다

작품 감상을 마치고 기상대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기도와 날씨 영상(위성, 레이더)을 통해 전국의 날씨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예보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예보관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레이더 영상에서 얼음, 물 함량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색이 다르게 표현되고,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 날씨의 불확실성이 커서 정확한 예보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상대 앞 기상관측장소에서 기온 · 습도, 바람, 강수량 등 기상요소 전반을 관측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까지 기상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기상청의 노고를 알게 되다

나는 워킹맘이라 갑자기 비가 오면 민주의 하교 시간에 맞춰 우산을 학교에 가져다줄 수 없기에 하루의 마지막을 날씨예보 확인으로 마무리한다. 내가 손쉽게 확인하는 날씨예보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기상청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하늘사랑 사생대회'는 기상청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하늘사랑 사생대회'를 통해 더 많은 아이에게 기상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100세 정신과 의사 할머니의 마음 처방전

『백 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

저자 **다카하시 사치에** | 정미애 옮김 | 바다출판사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사람들은 경쟁과 시간에 쫓기는 생활의 연속으로, 이로 인한 긴장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는 장기 경기침체, 취업 불안, 실업과 우울, 고령화, 각종 사건 · 사고 등의 불안요소들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지친 심신은 어떻게 위로 받을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긴장을 풀어보려 해도 경직된 몸과 마음은 쉽게 이완되지 않는다. 바쁜 일상으로 심신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을 무렵, 이를 눈치 챈 아내가 잠깐의 짧은 쉼표라도 찍으라면서 책 한 권을 내밀었다. 바로 『백 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저자인 100세 정신과 의사 할머니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쓴 책이다. 책에서 크게〈인생의 균형〉,〈생활의 균형〉,〈건강의 균형〉,〈인간관계의 균형〉,〈사랑의 균형〉 다섯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100년을 살아온 저자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게 있다. 바로 '마음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너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지 않는 것. 너무 참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지만, 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러한 균형을 찾아내는 '분별력'이야말로 어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다. 또한, 인생에 정답은 없으며, 삶의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은섭
관측기반국 정보보호팀



평소 마음이 불안정하면 일상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기 쉽지 않다면, 저자는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고, '균형'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균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어두운 터널 안에서는 자신을 믿기, 실현 가능성은 제쳐 두고 마음껏 꿈꾸기, 낯선 것에 눈길 돌리기, 자신에게 맞는 취미 발견하기, 녹색 식물 기르기,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약 복용하기,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나이 들어가는 방식 가꾸기 등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자는 자신도 여전히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현재진행형'의 여정을 보여 주면서 정답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음률을 고르게 맞추기 위하여 적당히 짧은 곡조를 연주한다는 뜻을 가진 '다스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다스름'을 하루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빼곡하게 짜인 하루 일상을 시작 전에 긴장을 이완시켜서 스스로를 조율하는 나만의 '다스름' 과정을 만들어보자. 더 나아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되돌아보는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한다. 그렇게 나름의 조화로운 조정과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시작해봐야겠다. 또한, 이제는 나를 비롯해 사랑의 울타리인 가정으로, 또 내 직장이나 일터와 같은 삶의 모든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에도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테니깐 말이다.

여름, 아름, 얼음!

여름밤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이런 날에는 운동장을 반 바퀴만 돌아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오늘도 '그것'이 나타날까? 희뿌연 안개 같은 '그것'은 아름이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나타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곤 했다. 아름이는 '그것'을 생각하며 운동화 끈을 조여 맸다.





조희애
동화작가

[야, 그거 유령 맞다니까?]

벤치에 올려둔 아름이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현주의 메시지였다. 지난달에 서울로 이사를 간 현주는 아름이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절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정반대였다. 달리기만 할 줄 아는 조용한 아름이와 달리, 현주는 여름에 개최하는 공포 장르 영화제에 매해 빠짐없이 출석할 정도로 개성이 강한 친구였다.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봐. 궁금해.]

[왜 말이 없어. 달리기 중이야?]

[근데 그 유령 약간 변태 같지 않냐? 유령이 왜 백허그를 해?]

아름이는 현주의 메시지를 곁눈으로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한쪽 다리를 뒤로 잡아당기며 허벅지 근육을 푸는 데 집중했다. 남은 시간은 2주.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한다. 컨디션 난조로 코스를 완주하지 못한 지난 대회의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아름이에겐 유령이든 뭐든 '그것'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것'만 있으면 여름 땡볕 속 42km의 기나긴 마라톤 코스도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완주할 수 있을 터였다.

그때였다.

아름이가 서 있는 건너편 화단에서 희뿌연 안개 덩어리가 땅 속에서부터 뭉실뭉실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작은 거품들로 이루어진 구름 내지는 커다란 솜사탕처럼 보였다. 곧이어 안개 덩어리가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구 형태의 새하얀 덩어리 두 개가 서로 붙어있는 모습은 거대한 조롱이떡을 연상하게 했다.
아름이는 얼른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나타났어!]

[으악! 빨리 사진 찍어 보내!!!!!!!!!!!!!!!]

텍스트에서도 들려오는 현주의 고함 소리에 아름이는 허둥지둥 카메라 어플을 찾아 실행했다. 하지만 아름이는 곧 자신이 한 박자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땀에 젖어 있던 등이 돌연 시원해진 것이다. 방금 전까지 공중에 둥둥 떠 있던 거대 조롱이떡은 어느새 아름이의 등에 곤히 붙어 있었다.

*





'그것'이 처음 나타난 것은 극심한 열대야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름이는 선수 인생 최초로 완주를 포기해야 했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야간 기온이 26도를 웃도니, 밤에도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그렇다고 다음 마라톤 대회까지 망칠 순 없었다. 아름이는 매일 밤 야외 공원으로 나가 운동장을 돌았다. 서른다섯 바퀴…… 서른여섯 바퀴…… 서른일곱 바퀴……. 한아름은 뜨끈하게 달궈진 육상 트랙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곧 꺼져버릴 듯한 혼미한 정신 사이로, 아름이의 시선이 우연히 건너편 화단 너머에 꽂혔다.

'잠깐……. 내가 만든 눈사람은 어디로 갔지?'

*

[망했다, 사진 못 찍었어!]

라고 현주에게 답장을 쓰던 아름이의 머릿속에 불현듯 무언가가 떠올랐다. 잠깐, 그러면 셀카를 찍으면 되잖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아름이는 휴대폰을 쥔 손을 최대한 바깥으로 꺾어 자신의 등에 조개처럼 딱 붙은 '그것'의 사진을 현주에게 곧바로 찍어 보냈다.



[짜잔! 사진 보여?]



[이게 뭐야? 그동안 장난이었냐?]

[엥?]

[너 이거 어플로 찍은 거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아름이는 채팅 방에 올린 '그것'의 사진을 클릭했다. 그 순간, 아름이는 자신의 등이 다시 한번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에는 지난겨울 아름이가 만들었던 눈사람이 해맑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제15차 한-중 기상협력회의 개최(7월 10일)

중국기상청 대표단을 초청하여 제15차 한·중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기상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기념식(7월 18일)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지역 주민 등 200명이 참석하여 대구지방기상청의 승격을 축하했다.



'2019 해피해피 캠페인' 시작(7월 10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해피해피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폭염 대응 요령을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이 지속되는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Photo News



국립기상과학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업무협약 체결 (7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은 국제기후환경센터와 기상·기후연구 협력 및 지역사회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폭염 심포지엄 개최(7월 23일)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폭염연구센터와 함께 서울대학교에서 “변화하는 기후와 폭염, 원인과 대응책은?”이라는 주제로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10주년 기념식(7월 24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기상위성센터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은 김종석 기상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공로자 표창, 초청인사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천리안위성 2A호’ 관련 정책브리핑 개최(7월 25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7월 25일 정식 서비스된 ‘천리안위성 2A호’에 대해 정책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천리안위성 2A호의 향상된 성능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korea.kr에 8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현주

태풍 '다나스'가 오기 전날 저녁노을. 태풍전야인데 그 하늘이 참 아름다워서 참 아이러니했던 날이었습니다.



강건우

기온도 올라 후덥지근했던지,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수대에서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이현정

이른 여름 휴가차 다녀온 하와이에서도 뜨거운 태양과 더위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야자수 그늘 속으로 숨어보지만 태양을 피하기엔 조금 민망한 상황이었답니다.



김경준

우산은 비가 오는 날에만 펼쳐지곤 하는데,
맑은 날 알록달록한 우산을 줄지어 전시해놓은 걸 보니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군요.



임영희

일상에 치여 장마철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가 떠오르는 날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서희정

여름을 맞이하여 동학사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초록 초록 나무그늘 아래에 발장구를 첨벙첨벙 치면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왔습니다. 여름을 즐기러 떠나보세요!



오은경

산은 사계절이 주는 자연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무더위로 지친 여름에 산에 오르면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마음까지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사진 : 박흥순, 〈천지개벽〉 2014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 글 : 조아라

잠시 후

바람 한 점 없는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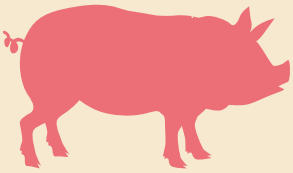
발소리만 듣고도
당신임을 아는 것처럼

비의 기척을 듣는다

제법 멀리서
설익은 구름
몰려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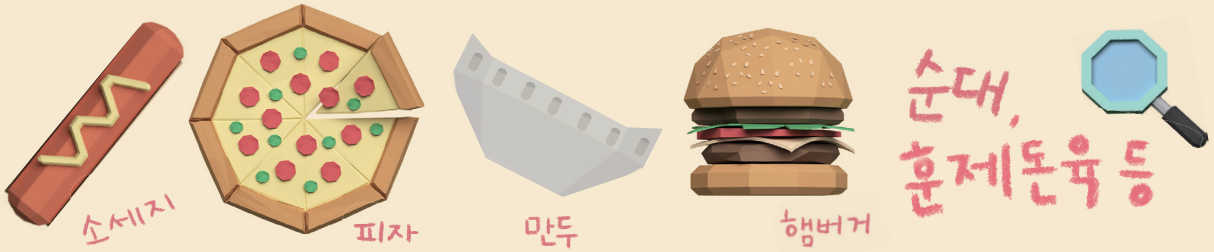
곧
하늘의 모서리를
허물며
쏟아질 듯

검푸른
잉크 한 방울,
하늘로 퍼져나간다



6월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천만원 과태료 부과

10,000,000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상향

휴대축산물 :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1회 위반 **500만원** | 2회 위반 **750만원** |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

* 그 외의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아시아(6개국) 중국(홍콩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유럽**(13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아프리카(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 KCMIE
Korea Climate and Meteorological Industry Exhibition 2019

기상기후산업박람회

2019. 9. 25(수) - 27(금)
KINTEX 제1전시장



행사특징
- 기상청 주최의 국내 최대 기상장비·서비스 산업분야 전문 박람회
- 기상기후산업 신기술 교류 및 맞춤 비즈니스의 장
- 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위한 관련산업 박람회 동시 개최

참관객 사전등록 방법
- 홈페이지 접속(meteoexhi.kr) → 온라인 사전등록
- 단체 참관객 차량운행 지원 가능

참가기업 신청 문의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사무국
T. 031-995-8746, 8209 / E. meteo@kintex.com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 기상 관측장비 생산 및 판매기업
  - 지상, 고층, 해양, 항공, 레이더, 낙뢰, 지진, 기후변화감시 장비 분야
- 기상예보, 기상컨설팅, 기상감정 등 기상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
- 기상·기후·환경 관련 연구소, 학회, 대학, 협회, 단체 등 기상 유관기관
-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업팀

부대행사
- 기상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해양기상 전문가 워크숍, 기상R&D 혁신기술세미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세미나, 수출상담회, 공공수요 비즈니스 상담회 등

박람회 홈페이지

주 최 기상청 주 관 KMI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KINTEX 에너지경제

동시개최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19 국제도로교통박람회, 2019 한국건설안전박람회